

[ 기획 ]

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1차 회의

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.

이날 모임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1명 중 김경태(광주은행 홍보팀장)·이모속(200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)위원 등 8명이,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.

“지역 밀착형 기사 과감한 전면 배치 필요”

‘과격시위 끝장 내자’ 시리즈 인상 깊어 韓-美 FTA 심층 분석·지면활에 부족

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광주일보의 정체성과 신문 제작, 편집 디자인 등 총론적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고 지난 10~11월 두 달 동안의 지면 분석을 통한 비판 등 본보 지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.

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. 이런 점에서 자료가 아닌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지면 제작이 필요하다.

독자는 자료 아닌 정보 원해

▲이모속(이하 속)=여성·문화 관련 기사가 부족하고 유행이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. 대부분의 주부들이 흔히 아는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다.

다만 지역 뉴스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. 또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기획 기사로 게재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끈질기게 추적, 보도해 전국적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
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.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모속(200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)·서기준(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)·김경태(광주은행 홍보팀장)·김재곤(서정치과 원장)·문병훈(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)·이병철(변호사·조선대 법학과 교수)·진원장(조선대 미술대학 학장)·이모속(200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)위원 등 8명이,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.

아이템과 기사를 개발해야 한다.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. 광주의 경우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. 이러한 지역적 상징성을 깰 수 있는 운동을 펼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.

주부들, 웰빙·교육에 관심

▲문병훈(이하 문)=그런 면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‘과격 폭력시위 끝장내자’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게재된 시리즈 기사는 좋았다. 평화·준법 시위 정착이 필요하다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

같다. ▲진원장(이하 진)=광주일보가 문화 중심도시에서 좋은 문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.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 같다. ▲문=광주일보의 경우 서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반면 한미 FTA는 미흡한 것 같다. 또 지난 12월 8일자 22면 ‘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’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 선수의 경기 당시 사고 사진을 그대로 실었는데 보기 민망했다. 눈에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.

지난 11월 28일자 1면 ‘광주·전남 6천명 ‘종부세 폭탄’, 19면 사설 ‘세금폭탄-종부세 보완책 마련해야’ 등 ‘폭탄’이라는 단어를 택했는데, 언론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. ▲속=어설픈 중언지를 흉내내서는 곤란하다. 베껴거나 설익은 내용의 기사를 쓰지 말고 주부들도 손이 갈 수 있도록 ‘웰빙·자녀 교육’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. ▲서=체육 부문과 정치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독자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.

▲곤=광주일보 지면에 모 기업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데,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갖는 독자들도 상당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. 드러나지 않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. 독자가 광주일보에게 멀어져서 좋을 게 없다. 특히 이같은 기사로 자칫 광주일보의 정체성에 흠이 생길 수 있다. “모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”는 수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▲철=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명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이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다. 노벨상 수상자 등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이 우리 경제에, 광주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알려줬으면 한다. ▲진=신문도 상품이다.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신문의 편집과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. 광주·전남지역 대학에서도 디자인 분야 우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.

지방행정 잘못에 너무 관대

▲이=인터넷 등으로 인해 활자 매체인 종이 신문을 멀리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렵더라도 이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. 교육의 경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논술 강좌나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필요하다. ▲문=많이 바뀌었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행정을 감시하며 정책과 고위 행정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에 시선이 머문다. 하지만 광주일보는 지난 1년 지역 행정 잘못에 관대했다. 2007년에는 좀 더 지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

Advertisement for '연로배기' (Senior Care) services,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about home care and support. Contact: (주)태양성사 TEL: 1082-21262-0101

Advertisement for 'www.lawbig.co.kr' legal services, including '해방!!' (Release!!) for debt and '중산중대/신용불량' (Middle/Large Debt/Credit Default) services. Contact: 1577-8682, 011-625-6097

Advertisement for '산행안내' (Hiking Guide) by '극제외식산업(주)'.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: (주)극제외식산업 TEL: 1082-252-2278, 255-2278

Advertisement for '직장에서, 사무실에서~송년모임!!!' (Year-end Party!!!) by '극제외식산업(주)'. It features photos of food and drink and lists menu items. Contact: (주)극제외식산업 TEL: 1082-252-2278, 255-2278